

# 전북 상공인들 “지역경제 회복·미래성장 기대”

### 상공회의소협의회, 도지사 후보에 정책제안서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 전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차기 도정에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18일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전북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전북 지역 상공인들의 현장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제안서에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8일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 왼쪽)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사진 오른쪽)에게 전북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를 전달했다.

위한 전북경제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기반 구축 △세계지 원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노동환



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등 4개 분야 총 22개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오상근 기자

특히 상공인들은 전북경제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경제의 새로운 성장 방향과 지역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기 도정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농촌공간계획’ 솟폼에 담는다

### 한국농어촌공사, 7월 24일까지 공모전 출품작 접수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알리기 위한 솟폼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민중)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공사와 한국농촌계획학회(학회장 신지훈)가 공동 주관하는 ‘농촌공간계획 솟폼 공모전’ 출품작 접수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자격은 농촌공간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의 솟폼 영상으로, 농촌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담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영상 제작에는 인공지능(AI) 도구 활용이 가능하며, 순수 창작물이라면 표현 형식에도 제한이 없다. 예시 주제로는 △삼터·일터·쉼터가 어우러진 농촌공간 △지역자원과 농촌특화자구를 활용한 활력 있는 농촌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간 조성 등이 제시



됐다. 접수 기간은 7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뒤, ‘소통24’ 누리집과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 온라인 투표로 거쳐 진행되며, 오는 9월 중 최종 수상작 10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오상근 기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역대 최대 규모 신청

### 전북중기청, 총 6만2944명 신청... 청년·지역·전 세대 참여 확대

대한민국 전역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신청 기록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삼만)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총 62,944명이 신청했다. 이는 일반·기술 분야 51,907명, 로컬 분야 11,037명을 합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접수 마감일 기준 공식 플랫폼 누적

접속자는 141만 8,600명을 넘어섰으며, 회원가입자도 13만 5,036명에 달했다. 특히 분당 19.5명이 접속하고 1.9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창업 열기를 입증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청년층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 42,79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또한 최연소 9세부터 최연장 90세까지 전 세대가 고르게 참여했으며, 외국인 신청자도 540명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신청자가 33,628명(53.4%)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예비창업패키지 비수도권 비중보다 23.4%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14,728명, 28.4%)가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교육 분야가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 분야(64.1%)와 F&B 분야(27.1%)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가 급증했다. 일반·기술 트랙에서는 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가 15,339건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했으며, 한 줄 아이디어 키워드 분석에서도 ‘인공지능’이 최상위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 결과 일반·기술 분야

에서는 ‘AI’, ‘자동’, ‘데이터’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고, 로컬 분야에서는 ‘브랜드’, ‘공간’, ‘관광’ 등이 중심 흐름으로 분석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창업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부정적 인식은 64%에서 33.1%로 감소했고, ‘창업 도전 의향’은 67.2%에서 89.9%로 증가했다.

정부는 접수된 6만여 건의 아이디어를 검증해 오는 6월 중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AI 솔루션, GPU,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멘토링과 지역 선배 창업가 특강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계약재배 활성화·지역 농식품 산업 연계 강화 논의

###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농업·기업 상생협력 Kick-off 회의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업 수혜기업 선정 완료에 따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참여기업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6개 참여기업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농업과 식품기업 간 안정적인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과 기업 간 연계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회계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특강에서는 산농연구소 이승형 박사가 ‘지역과 기업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농업과 식품기업 간 지속가능한 협력 필요성과 상생 모델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동명회계법인 정인수 회계사가 보조사업 수행 시 사업비 집행 기준과 정산 절차 등을 설명해 참여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오상근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반·바·지 출근 캠페인’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5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응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반·바·지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바·지 캠페인’은 “반바지 출근! 바꾸는 일상, 지속하는 GX(녹색대 전환)를 슬로건으로, 복장 간소화를 통해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의 조기화·장기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재로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임직원 자율 참여로 진행되며, 반바지 착용은 내근 업무 시에만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노출 복장이나 운동복 착용 등은 제한된다. 공사는 참여율이 높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커피차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초기 참여 우수 사업소에는 별도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 바이오기업·투자기관 한자리에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바이오 J-커넥스 밋업’ 행사 가져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19일 전북 스마트농생명오픈랩에서 도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북 바이오 J-커넥스 밋업(J-Connect 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바이오기업과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 유관기관 관계자 간 투자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기업 6개사와 국내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과 기업지원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설명(IR) 발표, VC 질의응답, 1:1 투자상담,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AI·디지털헬스케어·RNA 치료제·재생의료·의료로봇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첨단 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IR 발표에는 ㈜플라스바이오, ㈜바이오메디스, ㈜에이블테라퓨틱스, ㈜바이엘티, ㈜유스바이오글로벌, ㈜파마로보틱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핵심 기술과 사업화 전략, 글로벌 진출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SBI인베스트먼트, 데일리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크립톤, 케이엔 투자파트너스, A.S.K. Ventures 등 주요 VC 및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해 기업별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 후속 투자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